

世界人口問題에 對한 見解

—Views on the World Population—

하와이大學校 保健大學院

朴 在 彬*

우리 나라는 주로 親多産의인 文化遺産을 이어 받아 왔으나 十餘年前 처음으로 家族計劃을 國家事業으로 推進 實踐한 以來別로 이렇다 할 組織的인 阻害要素에 부딪치지 않고 눈부신 成果를 올리고 있다. 오늘 날의 出生率은 1960년에 比하여 3分之 1이나 減少되어 있다. 勿論 이러한 出生率의 減少原因이 全部 家施計劃에 歸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研究에 依하면 減少分의 最少 3分之 1은 家族計劃이 主因으로 看做되는 婚姻 出生率의 低下가 負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이 世界的으로 高名한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家族計劃이 잘 되는 理由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바탕으로 되어 있는 人口問題에 對하여 比較的 雜音이 없는 道도 들 수 있다. 過去에 人口問題로 인하여 激烈한 論爭이 있었든 것도 아니고 出生率 低下를 主唱하는 側에서 特別히 理論的인 窮地에 몰려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 말대로 一糸不亂하게 家族計劃을 推進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부카레스트」의 世界人口會議에서도 分明히 들어났듯이 人口問題에 對하여 世界的으로 많은 見解差가 있다. 勿論 人口가 論議의 對象이 될 때 부터 一致된 見解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國富論으로 有名한 Adam Smith는 人口成長을 介意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位置의 大經濟學者 John Stuart Mill은 適正人口를 부르짖어 現今의 靜止人口論의 先導를 하였다고 하겠다. Malthus와 Marx는 서로 相反된 人口理論을 展開하여 結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두 가지의 人口學說이 있는 것은 너무나 有名하다.

오늘날 人口問題가 못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國家가 人口成長 抑制事業을 試圖하게 됨에 따라 人口

問題는 單純히 學者間的 論爭의 對象일 뿐만 아니라, 政治人, 宗教人, 法曹人, 實業人等 할 것 없이 各階 各層이 直接 間接으로 關係하게 되었다. 그런만큼 現今의 人口觀點은 多種多樣하며 純粹한 學問的인 見地에서 生기는 差異 뿐 만 아니라 國家나 個人的 利害關係, 敎理的 或은 道德的인 問題, 感情的 要素, 人道的 要素等 여러 가지 條件에 影響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見解를 分類하기란 困難한 課題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人口成長에 對한 贊反을 分類의 基準으로 하여 다섯가지로 나누어 觀察해 보고자 한다.

× × ×

가장 悲觀的이고 極端的인 見解는 人口成長을 將來人類가 滅亡하는 根本原因이라고 보는 것이라 하겠다. 주로 未來派學者들이 이런 見解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人口, 資源, 環境」이란 著書로 有名한 Stanford大學의 Paul Ehrlich 教授等이 代表의 人物일 것이다. 事實에 있어서 同書籍에서 보면 人口의 爆發的 成長은 이 地球의 數十億年 歷史上 가장 人類에게 有意한 事件이라고 前提하고 한 大陸이 沈沒하는 것이나 氷河時代가 再到하는 것도 現今의 人口問題에 比하면 別것이 못 된다고 極論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有名한 「로-마 클럽」이 主動이 되어 MIT의 컴퓨터 施設을 利用한 모델에 依하면 現在와 같은 人口成長과 經濟成長이 持續되면 21世紀에 이르러 環境汚染과 食糧難과 疾病의 만연으로 因하여 人類는 崩壞狀態에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內容이 1972年 「成長에의 限界」(Limits to Growth)라는 冊子로 發刊되어 一大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人類的 危機」라는 冊名으로 三星文庫版으로 翻譯出版되어 있다.)

그後 이 모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錯誤가 있었다는 批判도 있었으나 「로-마 클럽」에서는 다시 補完을 한 모

* 本 主題 發表當時 延世大學校 人口 및 家施計劃 研究所 訪問 研究教授 및 家施計劃 研究院 諮問役

델을 作成하여 今年 10月 그 結果를 「轉換點의 人類」(Mankind at the Turning Point)라는 書籍에 發表하였다. 이 新모델에서는 全 世界를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Input 變量을 增加하여 Simulate 한 것이지만 若干의 時間的 遲滯는 있어도 結局 Limits to Growth와 大差 없는 結果가 나왔다고 한다. 即 現今의 technology 發表 만을 가지고는 人類가 當面한 資源과 環境問題를 解決 할 수 없 다 는 것 이 며 萬 一 產 兒 制 限 事 業 을 20年 만 遲 延 시 킨 다 면 開 發 途 上 國 家 에 서 現 在 世 界 人 口 에 匹 敵 하 는 37億 의 出 生 이 더 있 을 것 이 지 만 이 數 는 饑 餓 과 疾 病 때 문 에 그 냥 沒 殺 되 고 말 것 이 라 고 豫 測 하 였 다.

이러한 極端의 group에 屬하는 人들은 人類의 敵은 우리들 人類 自體라고 말하고 있다. 그 論理가 分明하고 直線의이며 人類 未來에 對한 可 恐 性 때 문 에 젊은 知識人들에서 많은 共鳴者를 끌고 있다. 이들은 人類를 救出하기 爲하여 可能한 速히 그리고 적은 數로 人口 安定을 이루어야 한다고 主張하며 Zero Population Growth (ZPG)等 활발한 社會運動을 벌리고 있다.

두번째의 見解를 가진 group에서는 人口問題를 全人類가 겪고 있는 危機의 根源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빠른 人口成長으로 말미암아 經濟發展이나 社會開發이 甚히 鈍化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 經濟發展도 社會發展도 빨리 이룩하여야 할 것이 지 만 그 러 려 면 人口成長도 抑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見解는 慫慂하고 남을 刺戟하지 않는 것인만큼 國際 開發機關이나 家族計劃을 實施하는 政府 또는 援助를 提供하는 政府에서 흔히 取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政府發行의 여러 油印物을 통해 「經濟開發의 一環으로서 家族計劃을 強力히 推進」云云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group는 모든 經濟 社會 開發計劃과 併行하여 人口計劃도 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첫째 group가 「GNP보다 ZPG」라고 하는 代身 이 group에서는 GNP를 노력야 하지만 GNP 計算에 있어서 分子가 되는 生産만 增大시키는 것이 아니라 分母가 되는 人口도 同時에 增大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 풀이 할 수 있겠다.

셋째의 觀點은 贊反의 中間에 서있는 中立的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group에서는 人口成長은 經濟發展이나 社會開發과 直接의인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開發된 國家에서 立證했듯이 社會經濟의 發展이 있으면 아무런 政府對策이 없어도 自然히 生産率이 減少되어 人口成長問題는 저 절로 解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口增加의 抑制를 國家가 찌하기 以前에 適切한 經濟開發策을 講究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中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잘 못

사는 것은 人口增加에 起因한 것이 아니고 社會體制가 잘 못된 탓이라고 한다. 人口의 都鄙分布, 富의 分配, 教育 醫療의 均霑 등이 合理化되고 收奪없는 社會가 形成되면 人口增加는 問題化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過般의 世界 人口會議에서도 이런 立場을 取한 國家가 相當히 있었는데 이 中에는 非單 共產陣營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諸國도 많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人口 成長때문에 못 산다고 하지만 1km²當 300~400名의 密度를 가진 네델란드나 벨기에는 잘 사는데 왜 密度 幾十名에 不過한 아프리카 諸國은 못 사는가 라고 그들은 反問하였다. 開發途上國家와 既開發國家間에 介在하는 巨大한 不均衡때문에 問題가 生기는 것이지 開發途上國家의 人口增加가 問題 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아프리카 國家들은 under-populate되어 있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開發途上國家의 人口에 對하여 爆發이라는 劇的인 言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再生不能의 資源을 消耗하는 面에서 볼 때 問題는 도리어 人口數가 적고 增加率 이 鈍한 既開發國家에 있다고 한다. 實際에 있어서 美國의 人口는 全世界人口의 7%에는 未達하지만 資源의 消費는 50%를 훨씬 超過하는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의 見解는 人口成長抑制策에 對하여 反對의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人口成長 自體 보다 成長을 抑制하는 方法과 努力에 反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成長自體를 贊成하는 것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人口成長을 問題삼는 것은 一種의 陽動作戰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은 前記 셋째 그룹의 見解에 가까우나 感情의 要素가 끼어 있다고 보겠다. 先進國家에서 後進國家에 對하여 搾取를 繼續하고 그 것을 合理化하기 爲하여 後進國家의 生活水準이 向上 안되는 것은 빠른 人口成長 때문이라고 責任轉嫁를 한다는 것이다. 人口成長을 抑制하기 爲하여 國際協力을 提供한다는 것은 經濟協력을 안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것에 對한 핑계에 不過하다고도 한다. 또 經濟協력을 하여도 非效率의이고 缺陷이 있기 때문에 後進國의 經濟發展이 잘 안되는 것이지만 經濟援助制度에 對한 改正은 考慮치 않고 受援國의 人口成長만을 責하고 있다고 批難한다. 심지어는 既開發國家들이 繼續하여 번영을 누리고 資源을 豊富히 쓰기 爲하여 開發途上國家들의 人口成長을 抑制하고자 하며 自國民은 繼續 늘리고 他國民은 沒殺하려는 생각에서 家族計劃을 勸獎한다고 까지 極言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家族計劃 援助는 事實 새로운 植民地政策에 不過하다고 본다.

國內的으로도 이런 態度를 取하는 層이 가끔 있는 것

을 본다. 卽 政治人들이나 大實業家들이 政治를 잘 못했거나 自己私腹을 채우는데 及及하여 國民의 生活이 向上되지 않고 있으나 그 것을 그대로 是認하는 境遇 革命까지도 일어날 可能性이 있으니 人口成長을 scapegoat로 찾는다는 것이다. 政治도 잘 하고 經濟開發에도 努力하고 있으나 人口成長이 빨라서 民生에 改善이 없는 것이니 家族計劃을 해야한다고 政治家나 大企業主들이 떠들고 있으나 結局 이것은 自己네들의 失策이나 私腹의 肥大를 감추기 爲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다고 攻擊하는 것이다.

人口成長에 對한 觀點의 continuum에 있어서 또 하나의 極端은 人口成長을 支持하는 것이지만 이 다섯번째의 group도 여러가지 rationale에 바탕을 두고 있다.

假令 London大學의 Wilfred Beckerman教授는 그의 近著 In Defence of Economic Growth에서 人口增加가 經濟發展에 害롭다는 證據는 없다고 하며 人口增加에 肯定的인 態度를 보였고 어느 나라에서나 産業化의 初期에는 急激한 人口增加를 수반하는 것이고 오로지 變영을 이룬 後에야 人口增加가 停止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資源은 決코 有限한 것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濠洲의 著名한 經濟學者인 Colin Clark教授도 人口增加를 오랫동안 主張하여 왔다. 美國의 Bruce-Briggs教授에 依하면 地球는 人口 300億을 지탱할 수 있는 食糧生産能力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經濟的面 뿐 만 아니라 二次大戰以前式의 思考方式에 依하여 人口는 國力으로 看做하고 人口增加를 積極 獎勵하는 나라도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莫大한 資源에 比하여 過少한 人口를 가진 브라질은 出生率의 增大뿐만 아니라 活潑한 移民政策까지 쓰고 있다. 이 것을 본 隣接國인 아르헨티나는 甚한 威脅을 브라질로부터 느끼게 되고 그 때문에 出生率增加를 부르짖고 있다.

한편 共產부록에 屬하는 東유럽國家에서는 現在 世界最下位의 出生率을 가지고 있으나 深刻한 勞動力 不足 때문에 人口增加策을 取하고 人工流産을 不法化하였다. 假令 루마니아에서 볼 때 人工流産의 不法化로 말미암아 一時 出生率의 增加를 招來한 일도 있었으나 그後 다시 下降하고 말았다. 蘇聯에서도 세아이낳기運動을 하고 있으나 目的達成은 無望한 것으로 듣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一時 出生率上向을 바라는 人口問題 審議委員會의 建議가 있었으나 이 것도 勞動力의 減少에 起因한 것이었다.

勿論 가톨릭敎가 國敎로 되다싶이 한 國家群에서는 敎理上의 理由로 하여 人爲的인 人口成長抑制策 特히

人工流産에 對하여 深刻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理由로 하여 過般의 世界 人口會議에서는 共產主義 國家와 가톨릭 國家가 提携하는 「奇怪한」現象을 나타내게끔 되었다.

以上은 人口成長에 對한 主된 見解를 記述한 것이다. 한편 人口成長을 集團的으로 組織的으로 抑制하는 데에 同意하면서도 그 方法에 對하여 相當한 見解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國家나 會社의 앞날을 主된 關心으로하여 國家的인 目標을 人口成長率에 設定하고 그 것에 相當하는 出生率의 低下를 戒하는 巨視的인 接近法이 있는 反面에 個個人이나 個個家庭의 經濟狀態, 保健問題, 福祉問題等을 主된 課題로 家族計劃을 勵獎하는 巨視的인 接近法도 있다. 인도같은 나라는 social planner가 主動이 되어 家族計劃을 시작한 國家의 代表일 것이고 台灣, 日本, 우리나라 등은 人道主義的인 見地에서 醫師等이 主動이 되어 MCH를 부르짖으며 家族計劃運動이 시작되었다.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政府가 이 運動을 endorse하면서 macro한 接近으로 轉換되었다 하겠다.

近者에 와서는 出生率 低下의 方策을 家族計劃 뿐만 아니라 여러 社會經濟施策을 通하여 이루려는 이 론바 Beyond Family Planning이 主唱되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定族手當代身 家族이 크면 도리어 稅金을 加하자고도 하고 子女數가 적어야만 政府아파트에 入住가 可能하고 高順位出産에는 助産料를 加算하여 받는 나라가 實際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現行家族法의 改正으로 女子의 相續等이 可能해지면 出生率低下에 寄與하는 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人口安定에 대한 時期에 對하여도 여러 見解가 있다. 人口成長을 人類危機의 根源으로 보는 사람들은 即時安定을 부르짖고 있으나 漸進的인 安定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人口成長이 別안간 停止되는 것으로 오는 社會的 混亂을 우려하기도 한다. 出生率의 漸次的인 低下로 오는 여러 consequence에 對하여도 深甚한 配慮를 하고 있다. 老人人口의 增加로 인한 社會保障 負擔의 增加도 있을 것이고 政治的으로 볼 때 늙은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保守票의 增大 또는 結婚市場의 變化等 많은 後遺症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國民學校 新入生의 減少에 依한 敎育 負擔分布에 變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 ×

人口에 對하여 여러가지 見解가 있고 論爭이 있고 方法觀에 差가 있고 人口安定後의 社會構造에 만드시 樂觀만이 있는 것이 아님은 事實이다. 그러나 人口問題가 一般에 까지 부각되기는 極히 近者의 일이다. 1950年代만 하여도 人口同題는 別로 사람 입에 (文字 그대로 人

口!) 오르내리지 못 하였다. 겨우 20년에 不過한 동안
에 이렇게 큰 世界的 同題로 등장하려면 이른 바 百家
爭鳴이 있어도 當然한 일이다. 지난번 世界人口會議의
進行을 보고 幻滅을 表現하는 代表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 會議에는 140餘國家가 모였거니와 이 國家들

은 서로 體制가 틀리고 人種이 틀리고 皮膚色이 틀리고
開發程度가 틀리고 文化遺産이 틀리고 宗教가 틀린다.
그런 곳에서 약간 mild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대로 發
表된 Plan of Action을 보면 人口同題로 하여 全世界가
한 求心點을 指向하는 느낌을 안가질 수 없다.